



정교회주보

제2538호
2025년 8월 17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10주일
성 미론 사제순교자
성 바울로, 성 율리아니 순교자
(제1조 • 조과 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81
- 성모 안식 축일 찬양송 181
- 성당 찬양송
- 성모 안식 축일 시가송 181
- 사도경 : 고린토 전 4,9~16 ..(봉)202
- 복음경 : 마태오 17,14~23 ... 114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미흡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진 설명

아르토클라시아 의식

아르토클라시아는 ‘빵을 나누는 의식’을 뜻하며, 주로 주요 축일 대만과 뒷부분에서 거행하는 짧은 축복 예식이다. 또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아가페 식사 전통을 계승한 상징적 예식이기도 하다.

다섯 개의 빵과 물고기 두 마리(마태오 14,13-21 참조)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념하여 봉헌된 다섯 덩어리의 빵과 포도주, 기름을 축성한다.

빵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적 생명의 공급을, 기름은 치유와 거룩함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의미한다. 축성된 빵은 신자들에게 나누어지며, 영적 평화와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현대에는 개인의 축일, 가족의 기념일, 건강 기원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토클라시아를 요청하며, 이는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함께 나누려는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왜 믿으려 하지 않나?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이 브리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로께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선한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희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어 이성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한마디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라야 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 끼릴로스는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믿음의 가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있는 광범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농부가 땅을 일구는 것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 없이는 힘들고 고

된 일을 하면서 인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원들은 믿음을 갖고 항해하는데, 그것은 육지보다 출렁이는 바다를 더 좋아하며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배를 신뢰하며 그들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

믿음의 길은 마치 천국을 향하여 배를 타고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평온할 때도 있지만 바람 불고 파도가 거칠어지면 침몰할 지경까지도 가게 되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성취시켜주실 하느님이 계시기에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마태오 17,20) 우리가 못 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확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싹이 돌아 잎이 나서 자라게 되면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되듯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믿음이 자라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되어 많은 선한 일을 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의 의심 없이 완전해야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주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삶

만일 당신이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밝고 유쾌한 얼굴로 주고 친절한 말로 그의 슬픔을 위로해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실천한다면, 당신의 명랑하고 생기를 주는 모습은 가난한 이가 받게 되는 물질 이상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할 때는, 그날 당신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으며 마치 하느님 앞에서 죽은 것과 같다고 여기십시오. 설령 당신의 생각으로는 당신이 신실하며 남을 도우려는 의도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그동안 행한 모든 선행은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로잡고 고치겠다는 이유로, 당신 자신의 영적인 집을 허물고 파괴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만일 당신이 어떤 이유로 몸과 마음이 병든 누군가로 인해 내적으로 슬픔을 느낀다면, 그날 당신 자신은 순교자와 같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의 인이라고 믿는 이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보십니까?

사악한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 슬픔을 느끼고, 의인보다는 죄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심지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내뿜어 발산하도록 하십시오.

- 시리아인 성 이삭(7세기)의 가르침 중에서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땅 위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가 살아있을 땐 개미를 잡아먹지만, 새가 죽고 나면 개미가 새를 먹습니다.

시간과 주변 상황은 어느 때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누구라도 얽잡아 보거나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은 강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당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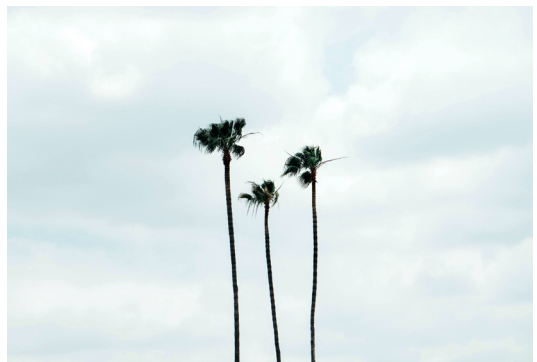
나무 한 그루로 수많은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성냥 하나로 수많은 나무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주신 수많은 긍정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 드리십시오!

오직 빛만을, 곧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어둠을 피하십시오. 삶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흔적을 남겨선 안 되는 팔호 속의 일들이고 여담(餘談)일 뿐입니다.

- 성 가브리엘리아 (1992년 안식)



■ 대교구 여름 수련회 종료

지난 4-5일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에서 열렸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도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도와 여러 활동을 통해 영적 이로움과 서로 간의 형제애를 쌓았습니다. 수련회는 6일 가평 수도원에서 구세주 변모 축일 예배에 참례하면서 마무리되었고, 학생들은 겨울 수련회 뿐만 아니라 매주일 성찬예배와 성당 모임에서도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을 마치고

가평 수도원에서는 주님의 변모 축일을 맞이하여, 5일(화)에는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의 집전으로 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의식이 있었습니다. 6일(수)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로만 대신부,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에피파니오스 수도신부, 박인곤 요한 신부 집전으로 조과, 성찬예배, 포도 축성식, 고 소티리오스 대주교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후 사랑의 오찬을 나누었고 춘천 수련회 참가자들의 노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모든 예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축일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귀한 도움과 정성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 성당 WCC 총무 방문

WCC(세계교회협의회)의 총무 제리 필레이 목사와 대표단, NCKK 총무 김종생 목사와 대표단이 지난 주일(10일)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을 방문하여 성찬예배를 참관하였습니다. 성찬예배 후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환영사와 필레이 총무의 답사가 있었고, 이어서 대교구 홀에서 손님들을 위한 오찬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연동교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NCKK 주최)가 있었습니다. NCKK 회장을 역임 중인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환영사를 전했고, 대교구에서는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 에피파니오스 수도신부, 크리스토퍼 보제가 함께 했습니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이재명 대통령 예방

지난 11일(월) 오후, NCKK 회장인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WCC 제리 필레이 총무 및 대표단, NCKK 김종생 총무 및 대표단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화해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서울 성당 세례 성사

지난 9일(토), 성 막심 성당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에피파니오스 수도신부, 크리스토퍼 보제 집전으로 성찬예배 중에 거행된 세례성사를 통해 이원중 루가 예비신자가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성의 샘터

거룩한 성품

성 안토니오스 대수도자는 제자들에게 회개가 이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동안 성성(거룩한 성품)에 이를 수 있다.”